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이천일

우리 축산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은 1990년 3조 9천억원에서 2010년 17조 5천억원으로 20년간 4.5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림업 생산액(4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2%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8조원 규모의 사료산업 등 연관산업의 규모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경제성장 및 육류 품질고급화 등에 힘입어 1인당 육류소비량이 1990년 19.9kg에서 2010년 38.8kg으로 20년간 2배로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돼지고기·우유 등 축산물의 가격등락과 수급상황 등이 국민경제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가축분뇨처리·악취 및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축산업을 환경오염·비인도적인 혐오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료원료의 높은 대외의존율,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낮은 사양관리수준 등으로 인해 생산비 증가, 가격경쟁력 저하 및 수급차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도축·가공·운송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및 한·EU FTA 등 무역자유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12년), EU의 산란계 케이지('12년) 및 모돈 스톨('13년) 사육 금지 등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장개방, 환경·동물복지 관련 규제 등 축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축산업은 양적인 성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환경·사회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질적성장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외의 축산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경쟁력 향상 정책과 더불어 환경과 사회를 감안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구제역 사태를 교훈 삼아 방역·검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정부·지자체·축산관계자간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여 가축질병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제역 SOP 개정 및 방역·검역 관련 조직 확

층을 통해 방역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 제고 등을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축종별(소·돼지·닭·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방역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전업농가 이상 백신비용 분담,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산농가의 시련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하시기단축(한우, 30 → 27개월) 및 국내산 소사로 자금을 제고 등을 통한 조사료·배합사료 급여비용 개선(현행 45:55 → 개선 55:45) 등으로 사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종축개량을 통해 사육환경·개체별 능력을 개선하여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가 유럽수준으로 향상(15 → 25두)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효율·고비용의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격경쟁력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형 팩커를 육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 도축장 구조조정(현재 87 → '15년 36 개소)을 통해 규모화·소식화된 도축·가공·유통기반 확충 및 위생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물 품질 및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력제('08년 시행) 대상 가축을 소에서 2014년에는 돼지로 확대하고 IT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여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10년 시행)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질의 변별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 돼지고기 등급 종류 단순화('11.6월 시행, 17 → 7개) 및 개선된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방법('11.7월 시행)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업은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약 29조원, 취업유발효과도 총 98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축산물생산이라는 1차 산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료, 동물약품, 킨선풀, 식품가공, 유통, 판매 등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산업 육성과 더불어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맞춰 승마산업을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도 부담 없이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국민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인과 관련 종사자들은 지금까지의 열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축산업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확충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